
「다양한 문화 체험으로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2013년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3. 9. 23 ~ 9. 28(4박6일)
- 방 문 국 : 미얀마
- 연 수 단 : 12명(의원 8명, 공무원 4명)



구 미 시 의 회

|| 목 차 ||

I . 연수목적 및 개요	2
II . 미얀마 일반현황	5
III . 주요방문지 견학 내용	9
1. 미얀마 양곤 시가지 및 영국군 묘지 방문	9
2. 쉐모도 파고다 및 몬족왕국, 문화유적지 탐방	10
3. 미얀마 최대의 도시 양곤 시청 방문	11
4. 예래 파고다(시리암) 방문	12
5. 한국 현지 봉제공장 (주) 동우 시찰	13
6. 아웅산 국립묘지 및 아웅산 수치여사 자택 견학	14
7. 깐도지 호수 및 황금대탑 쉐다곤 파고다 방문	15
8. 미얀마 최대시장 보족제이 및 롯데리아 1호점 방문	17
IV . 연수후기	18

I. 연수목적 및 개요

1 연수목적

- 급변하는 관광사업 환경과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시설 및 산업 현장을 비교 시찰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고,
-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관광개발, 문화재 관리 운영과 시설 견학을 통하여 실현가능한 정책 방향 및 대안 제시

2 연수개요

- 연수기간 : 9. 23(월) ~ 9. 28(토), 4박 6일
- 연수국가 : 미얀마
- 연수의 기대효과
 - 관광트렌드 변화를 읽고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관광정책 방향 설정
 - 역사·문화자산 및 무형자산의 관광자원화 사례 활용
 - 바람직한 다문화 공존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시 방향 제시
 - 현지문화·예술 체득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폭 넓은 의정활동 도모

3

연수단 구성 및 임무

연번	구분	직책	성명	임무
1	단장	의원	이수태	연수단 인솔·지휘
2	단원	"	김상조	- 문화유적지 보존실태와 관광지역 개발정책 시찰 등 -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비교연구 - 정부기관 운영실태 등 비교조사
3		"	김익수	
4		"	김정미	
5		"	김춘남	
6		"	김태근	
7		"	박세진	
8		"	정하영	
9	수행직원	전문위원	이영도	- 연수단 의전 수행 및 의정활동 지원 - 정부기관 운영실태 등 관련자료 수집 - 의정활동 기록 및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
10		사무직원	이창복	
11		"	박한기	
12		"	문수진	

4

연수 주요일정

일 시	세 부 일 정	비 고
〈1일차〉 9. 23(월)	인천 국제공항 도착, 출발 양곤 밉글라돈 국제공항 도착	
〈2일차〉 9. 24(화)	영국군 묘지(양곤외각), 쉐모도 파고다(바고), 쉐달랴웅 와불, 몬족왕궁 문화 유적지, 마하제비 파고다, 짜익푼 파고다 □□ 석식/토론회 개최(견학시설에 대한 토론)	
〈3일차〉 9. 25(수)	양곤시청, 독립기념탑, 예래 파고다(시리암), 봉제공장(주식회사 동우, 현지명-미얀마 해외), 쉐도우 파고다, 현지 백화점 방문 □□ 석식/토론회 개최(공공시설에 대한 토론)	
〈4일차〉 9. 26(목)	아웅산 수치여사 자택방문, 아웅산 국립묘지, 깐도지 호수, 쉐다곤 파고다 □□ 석식/토론회 개최(도시 개발에 대한 토론)	
〈5일차〉 9. 27(금)	아웅산 보족제이(재래시장), 롯데리아 1호점(정선스퀘어) 공항으로 이동, 미얀마 양곤 출발	
〈6일차〉 9. 28(토)	인천 국제공항 도착	

II. 미얀마 일반현황



* 미얀마의 국기는 2010년 10월 21일에 새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 개정된 미얀마연방공화국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노란색은 단결, 초록색은 평화와 자연의 풍요로움을, 빨간색은 용기를, 하얀색 별은 연방의 영원한 존재를 상징한다.

가. 일반현황

- 인 구 : 54,584천명
- 면 적 : 676,578km² (세계 40위)
- 수 도 : 네피도
- 정치·의회형태 : 대통령 중심제, 연방합동의회
- 행정구역 : 7개구역, 7개주
- 공식언어 : 미얀마어
- 1인당 국민소득 : 235\$
- 화 폐 : 1\$ = 825 Kyats(껀)

나. 정 치

- 1962년 쿠데타 이후, 1987년까지 네윈의 사회주의 정부가 다스렸다. 8888 항쟁, 아웅산 사건과 맞물려 1988년 새로운 군부가 집권했다. 1988년부터 2011년까지 군사 정권이 통치했으며, 미얀마 최고통치자인 탄 슈웨와 국가평화발전평의회가 국정을 주도했다.

- 군사정권의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 조치로 인해, 미얀마 군정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5월, 미얀마 군정이 의연히 민주세력에 대한 억압을 계속하고 있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2010년 5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군정 관계자와 국영기업의 미국내 자산 동결 송금 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외무장관 이사회도 2006년부터 도입되고 있는 미얀마 군사 정권에 대한 제재조치의 연장을 2009년 4월에 결정했다.

다. 지 리

- 미얀마의 총 면적은 676,578km²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는 40번째로 크다. 북서쪽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구와 인도의 미조람 주, 마니푸르 주, 나갈랜드 주,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북쪽은 티베트, 북동쪽은 중국의 윈난성과 접하고 국경의 총 길이는 2,185km이다.
- 미얀마는 남쪽과 남서쪽으로 벵골만 및 안다만 해에 이르는 1,93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서단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적으로는 서부의 아라칸 산맥, 북부의 고산지대, 중부의 저지, 동부의 산 및 테나세림 산지가 펼쳐져 있다. 중부는 다시 건조지인 상(上)미얀마 분지와 저습지인 하(下)미얀마로 나뉜다.



라. 경제구조

- 식민지 시대 미얀마 경제는 이중적 수탈 구조였다. 광산 · 임산 자원의 개발과 운수·무역은 영국인이, 중소 규모의 상업과 유통은 중국인과 인도인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에야워디강 삼각주의 벼농사지대에는 인도인 계절 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하부(下部) 미얀마 농지의 1/3은 인도인 남부 출신의 고리 대금업자 쳇떠야와 영국인을 포함하는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다. 1930년 발생한 사야 산(Saya San) 운동도 인도인과 식민정부의 이중적 경제 착취에 대한 저항이었다.
- 독립 후 정부는 경제민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추방하고, 국부를 대부분 국유화하는 사회주의경제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네윈이 집권한 이후는 버마식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非)미얀마인의 자본을 중심으로 국유화를 추진하여 국영 경제 구조를 확립했는데, 인도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마. 사회·문화

- 미얀마는 소승불교국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불교가 미얀마인의 사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출생하면 부모들은 가장 먼저 사원을 찾아 승려의 도움으로 작명을 하고, 남자 아이의 경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단기 출가하는 전통이 있다.
- 신뵘(Hsinpyu)라는 이 통과 의례는 미얀마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통으로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의식만큼은 빚을 내서 성대하게 치른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사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며 문자를 터득한다.

- 불교 이외에도 미얀마인들은 '낫(nat)'이라는 정령신을 섬긴다.

낫은 모두 역사상 실존한 인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37개 낫 이외에 각 가정과 지방에서 섬기는 고유의 낫이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릴 경우 낫의 노여움을 샀다고 풀이한다.

중부 지방에 소재한 뽀빠(Popa)산이 정령신들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바. 우리와의 관계

- 미얀마는 한국과 1962년 영사 관계를 맺은 이후 1975년 5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양국간에 체결된 협약은 무역협정(1964), 체신협정(1965), 통신교환협정(1966), 뉴스교환협정(1972), 항공운수협정(1976), 이종과세방지협정(2002), 무역공동위 설치 MOU 문안 합의(2003, MOU는 미서명), 한-미얀마 자원협력위 TOR 서명(2005년) 등이 있다.
- 1975년 10월 양곤 무역관이 설치되어 시장개척·입찰정보 수집 등 무역증진을 위한 가교역을 맡고 있다. 1983년 10월 대통령 전두환의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방문 때 북한의 테러로 수행원 17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그해 11월 북한과는 단교하였으나 2007년 4월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 2005년 기준 한국과 미얀마의 교역규모는 약 1억8천 달러로, 미얀마 통계 기준 한국은 6대 수입국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경유, 강관, 봉제용 원·부자재, 섬유기계, 종이·판지,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전기·전자제품 등이고, 수입품은 농산품, 수산품 등이다.

Ⅲ. 주요 방문지 견학 내용

1 미얀마 양곤 시가지 및 영국군 묘지 방문



미얀마 양곤 시가지(2013. 9. 24)



영국군 묘지 방문(2013. 9. 24)

양곤 시가지는 우리의 1960년대와 비슷하다. 일반시민을 위한 시내버스는 드문드문 지나고, 1톤짜리 트럭 짐칸을 앗고 서게 개조한 반(半)버스가 주 교통기관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가지를 장식한 형형색색의 간판에서 급격한 시장 개방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멀리 웅장해 보이는 황금색 파고다가 불교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 양곤의 외곽에 영국에서 직접 모든 건립비를 들여서 만든 영국군 묘역이 있다.

2 쉐모도 파고다 및 몬족왕궁, 문화유적지 탐방



쉐모도 파고다(2013. 9. 24)



쉐달라웅 와불(2013. 9. 24)



몬족왕궁 문화 유적지(2013. 9. 24)



쉐모도 파고다는 미얀마 최대 높이 117m의 황금 대탑으로 그 위세가 웅장하다. 황금으로 같이 덮여 있다고 하며, 처음 만들 때는 그리 높지 않았는데 역대 왕들이 증축에 증축을 거쳐 현재의 높이가 됐다고 전해진다.

쉐달라웅 와불은 몬족의 대표적인 유적지며 길이 56m, 높이 18m의 거대한 불상이다.

몬족은 남부 미얀마 오래전 조상으로 그들은 제국을 건설하고 문자와 불교를 미얀마에 전하였다. 1756년 미얀마의 통치자 U Aungzeya가 침략하여 몬족의 사제들과 주민들을 학살하였고 몬 왕국을 황폐화 하였다고 전해진다. 종려나무에 적혀있던 많은 기록들을 미얀마인들이 파괴하였고, 불행하게도 몬족에 대한 압제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

미얀마 최대의 도시 양곤 시청 방문



양곤 시청(2013. 9. 25)



독립기념탑(2013. 9. 25)

양곤은 700만의 미얀마 최대도시로서 경제·상업·항만 등의 기반이 집중된 상업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네피도로 수도를 이전하기까지 미얀마의 수도였으며,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화려하게 꽃을 피운 곳이기도 하다.

1885년 영국군이 미얀마를 완전 점령 후 양곤을 '랑곤'이라는 영어식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도시전체의 약 40%가 아름다운 공원과 2개의 호수(인와, 칸도지)와 파고다로 구성된 '동방의 정원'이라 불리기도 한다.



예래 파고다(2013. 9. 25)

이 파고다는 2000년 전 남부 미얀마에 파다라고 불리는 왕국의 쁘가떼나 왕이 있었는데 스승으로부터 부처님 불발 사리를 얻은 다음 이를 봉안하기 위하여 약10피트의 조그마한 파고다를 짓고 짜익 묘 카또라고 파고다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 후 10대인 때타나가 왕이 8명의 스리랑카 알라한 승려들로부터 추가로 부처님 사리를 기증받고 다음 세 가지를 조건을 이행 해 줄 것을 부탁받았는데, 첫째, 불당에 강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단을 만들 것 둘째, 많은 참배객들이 오도록 넓게 할 것 셋째, 시주자들에게 넉넉하게 상금을 내릴 것 등이었다.

그리하여 율사인 우바 두와 부인 도 떼에 의하여 작은 파고다는 헐리고 4층 51피트의 파고다를 새로 짓고 이름을 짜익묘운 예래 파고다로 명명 하였다고 한다.

남부 버마를 지배하였던 옛 포르투갈의 유적지 예래파고다는 나룻배를 이용하여 황토빛 양곤강에 세워진 물의 사원이었다.

5

한국 현지 봉제공장 (주) 동우 시찰



봉제공장(2013. 9. 25)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 주식회사 동우(현지명 미얀마 해외)를 방문하였다. 원단을 전량 우리나라에서 무관세로 가져와서 미얀마의 이점인 값싼 노동력을 이용, 봉제작업을 통해 완제품을 역수출하는 OEM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였다.

전기사정이 안 좋은 점이 다소 불편하지만, 앞으로 10년 이상은 미얀마의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사장님의 설명이 있었다.

현재 네파, 투스카로라 등의 의류를 생산하며 직원은 1,800명 정도이고 직원들의 급여는 월 10만원 내외라고 한다.



아웅산 국립묘지 및 아웅산 수치여사 자택(2013. 9. 26)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이 일어난 아웅산 국립묘지를 방문하였다. 당시에 이 사건은 1983년 10월 9일에 버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 미리 설치된 폭탄이 터져 한국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 등 2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 경찰국의 폭탄 테러 사건이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인 아웅산 수치여사의 자택이었다. 아웅산 수치여사는 미얀마의 독립운동 지도자인 아웅산의 딸로 군사통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수년간의 구금생활을 끝내고 현재 국회 의원에 당선되어 정치활동을 재개하여 미얀마의 민주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7 칸도지 호수 및 황금대탑 쉼다곤 파고다 방문



칸도지 호수와 쉼다곤 파고다(2013. 9. 26)

칸도지 호수는 넓은 호수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곳으로 이 일대는 국립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미얀마인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지만 외국인은 입장료를 내야 한다. 칸(Kan)은 호수, 도지(Dawgyi)는 왕실이라는 의미이다.

1917년에 영국 식민지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럽식 정원이다. 호수에는 거대한 새 모양의 배가 떠 있다. 이것은 힌두신 비슈누가 타고다니는 새인 커러웨익(산스크리트어로 가루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공원 내의 조형물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이다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 불교문화의 신앙의 심장부와 같으며 세계 불교 3대 성지로 불려지고 있다. 쉐다곤 파고다의 기원은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부처님 당시에 세워진 지구상에서 유일한 불발(부처님 머리카락)사리가 모셔진 파고다이다.

현재의 파고다는 둘레는 426m, 높이는 100m이고 파고다 영역 면적이 대략 만평 규모에 이르며 탑의 전신은 모조리 금판으로 덮여 있으며, 금의 양이 무려 60,000kg(금판 9,000여개)나 되고 첨탑에는 수많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76캐럿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다이아, 루비, 금종, 은종으로 장식되어 있다. 기단부는 정사각형이고, 기단 윗부분은 원뿔 꼴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형태를 취한다. 내부에는 부처의 유품이 들어 있으며, 불탑 안에는 대리석과 화강암 보도(步道)가 있는데, 맨발로만 들어갈 수 있다.



보족제이(2013. 9. 27)



미얀마 최대 쇼핑몰 정선스퀘어, 롯데리아 1호점(2013. 9. 27)

미얀마의 가장 큰 재래시장인 보족제이를 둘러보았다. 미얀마의 모든 물건이 모이는 집합소 같았다. 부지런한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미얀마의 유일한 국제 프랜차이즈 햄버거 패스트푸드 업체가 된 롯데리아 1호점이 초대형 몰인 정선 스퀘어에 입주해 있다.

월 매출 1억원이 넘으며, 철저한 외국인 투자 제한에 따라 현지 한국계 여사장인 문베이커리와 협력했다고 한다.

IV. 연수후기

- 구미시의회는 급변하는 관광사업 환경과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시설 및 산업 현장을 비교 시찰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관광개발, 문화재 관리 운영과 시설 견학을 통하여 실현가능한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미얀마 연수를 실시하였다.

4박 6일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왜 미얀마가 아시아의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지 이해 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 연수의 첫날 미얀마를 가기 위해서 인천 공항에서 양곤행 비행기에 올랐다. 6시간여의 비행 끝에 미얀마의 제1의 도시 양곤 밍글라돈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미얀마는 우기라 그런지 툼툼한 기후였다.

첫날 양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장에서는 환전절차가 없었다. 달러가 통한다는 말이고, 지내보니 1불짜리가 그중 요긴하였다. 중형 관광버스는 일제(日製) 중고차로, 아직도 일본말이 곁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솔직한 마음에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처음에는 관광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차츰 둘러 볼수록 미얀마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 미얀마 도착 다음날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에 영국에서 직접 모든 건립비를 들여 만든 영국군 묘지를 둘러보았다. 묘지를 둘러보면서 식민지였던 나라에 자국 군인의 공동묘지를 건립했다고 생각하니 나라 없는 설움이 뭇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홀홀단신 영국으로 건너가 담판으로 미얀마의 독립을 이룬 미얀마의 영웅 아웅산 장군이 떠올랐다.

○ 양곤 시가지는 우리의 1960년대와 비슷하다. 일반시민을 위한 시내버스는 드문드문 지나고, 1톤짜리 트럭 짐칸을 얹고 서게 개조한 반(半)버스가 주 교통수단역할을 하고 있다. 승객들은 남루하고, 그나마 항상 만원이어서 더러 매달려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모습이 이 나라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우리 과거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면 불현듯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만난 덕을 보는 것 아닌가. 해방이후 근 20년간 우리는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미얀마를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라고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미얀마 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던가.

○ 미얀마는 경제사회적으로 소수의 상류층과 대다수의 하류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류층은 없다고 한다. 상류층에는 세 부류가 있어 그 첫 번째가 인도계로, 이들은 금융과 무역업을 쥐고 있다. 다음이 화교(華僑)로, 이들은 요식업과 호텔 여관업을 쥐고 있다. 세 번째가 미얀마 군부(軍部)인데, 기타 모든 것을 쥐고 있다 한다.

○ 차량은 점차 양곤시내를 빠져나와 바고를 향하고 있었다.

바고에 도착한 일행은 미얀마에서 가장 높은(117m) 쉘모도 파고다를 둘러보았으며, 그 웅장함과 특이한 형태의 파고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원안에서는 맨발로 다녀야 한데, 처음 발을 벗으니 좀 어색하였다.

- 이어서 쉼달라웅 와불을 둘러 보았는데, 와불 곳곳에 건립 기금을 기부한 세계 각국의 불교신자의 국적과 이름을 새겨 놓았으며, 특이한 형태의 누워있는 불상이었다. 둘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바고에 주로 거주했던 몬왕조의 문화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미얀마는 역시 불교의 나라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불교문화가 볼거리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황금색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여러 파고다는 미얀마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미얀마 일부지역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부 이슬람을 믿는 소수부족을 불교도가 학살하는 사건이 터져서 미얀마는 무슬림 전체의 적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 일정 둘째날 우리는 2005년 11월까지 미얀마의 수도였으며 현재는 미얀마 최대 도시로 정치, 경제 활동의 중심지인 양곤의 시청을 방문하였다. 양곤 시청에서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관광개발, 문화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양곤은 다국적 기업과 해외 공관이 들어와 있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다른 도시에 비해 편의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었다. 시청 맞은편에는 미얀마 국민들의 조국 광복에 대한 기쁨을 가득담은 독립 기념탑이 시원한 분수와 함께 우뚝 솟아 있었다.

- 다음 여행지인 시리암에 있는 예래 파고다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열대 스콜같은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이곳이 열대지방이며 우기라는 말이 떠올랐다. 빗속을 뚫고 우의를 모두 갈아입은 후 쪽배 같은 동력이 있는 배를 타고 해상 파고다인 예래 파고다를 다녀왔다. 흐르는 강위에 파고다를 건립한 미얀마의 불교사당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 다음으로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 주식회사 동우를 방문하였다. 원단을 전량 우리나라에서 무관세로 가져와서 미얀마의 이점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봉제작업을 통해 완제품을 역수출하는 OEM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였다.

전기사정이 안 좋은 점이 다소 불편하지만, 앞으로 10년 이상은 미얀마의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사장님의 설명이 있었다.

둘째날, 마지막 일정인 쉐도우 파고다를 둘러보고 현지 백화점을 방문하였는데, 미얀마에서는 농산품이 싸고 공산품이 비싼 나라여서, 외국 청바지나 일반 바지는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인해 제복을 입는 공무원외에는 주로 론지(천으로 감는 하의)라는 전통의상을 입는다고 한다.

- 일정 셋째날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여사의 자택을 방문하였고,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아웅산 국립묘지를 참배하였다.

아웅산 묘소는 이제는 관광객 누구나가 방문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미얀마 민주화 투사가 아웅산의 친딸이라서 만일 아웅산 묘소 정문 앞에 외국단체를 실은 관광버스가 잠깐 서기만 해도 사후에 안내원과 버스 운전수가 정보당국에 불려가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 호수 주변의 경관과 배모양 파고다 형태의 건물이 아름다운 칸도지 호수를 거쳐, 미얀마의 상징으로 양곤이 황금의 도시라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진 쉐다곤 파고다를 둘러 보았다. 여기서는 사원의 입장료가 관광객들에게 더 비쌌다.
- 공식일정 마지막날 우리는 양곤의 최대 시장인 보족제이를 둘러봤다. 과거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느낌이 나는 곳으로 미얀마의 모든 물건이 모이는 집합소 같았다. 세상 어느 곳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그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다음으로 양곤에서 최근에 생긴 유명한 백화점 옆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롯데리아 1호점이 있다길래 둘러 보았다. 가게에 들러 우리가 흔히 접하는 햄버거를 주문해 보았다. 맛은 비슷했지만 양곤에서 먹는 롯데리아 햄버거는 독특한 느낌을 주었다. 양곤에서는 롯데리아 햄버거가 고급 음식이며, 상류층 자녀들이나 한두 번 올 수 있는 곳이라 한다. 여길 끝으로 공식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 전체적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과 사회기반시설 등 모든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였지만, 전통과 문화에 대한 국민적인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세계 5위의 석유매장량과 민주화에 대한 열풍으로 급속도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미얀마의 잠재적 가치는 무궁무진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나라도 아시아의 마지막 기회의 땅인 이 곳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끝으로 짧지 않은 이번 연수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무사히 소화하고 여러 고견과 정책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직원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의 정책제언을 제안한다.
- 첫째, 이젠 참신한 발상과 기획으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신토불이식 관광상품 개발에서 벗어나 우리 시를 찾는 관광 수요자인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전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사회가 글로벌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점도 관광산업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둘째, 급속도로 팽창하는 미얀마의 경제 개발 욕구에 발맞춰 지역 기업들도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최근의 특별경제구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계획 등 미얀마 국내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갖는 것이다” 라는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로 4박 6일간의 연수결과 보고서를 끝맺을까 한다.